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23, October 2023, pp. 935-960
DOI: 10.15738/kjell.23..202310.935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ISSN: 1598-1398 / e-ISSN 2586-7474

http://journal.kasell.or.kr

‘엄마표 영어’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기영어교육 관련 단행본을 중심으로

권진주 (고려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September 9, 2023
Revised: October 7, 2023
Accepted: October 15, 2023

Jinju Kwon
Lecturer, Division of Culture Contents, College of Culture and Sports, Korea University
Tel: 044-860-1204
E-mail: pearl.kwon@gmail.com

ABSTRACT

Kwon, Jinju. 2023.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Eommapyo English’: Focusing on Books related to Early English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3, 935-960.

This study applied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find out what kind of discourse ‘Eommapyo (mother-brand) English’ is currently producing in our society. Content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on 178 related books published from 2013 to 2023.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scourse related to Eommapyo English was divided into four themes: ‘step-by-step roadmap’, ‘Eommapyo English superiority theory’, ‘the power of reading English books’, and ‘language acquisition through exposure’. The discourse of 'Eommapyo English' reveals mothers’ efforts to reform modern educational methods and maternal ideology amid the wave of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of education and also the paradoxical role of mothers who want to present a new paradigm of early English education, but ultimately reproduce another competition trapped within the neoliberal system.

KEYWORDS

Early English Education, Eommapyo English, Maternal English Education, Big data analysis, CONCOR analysis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1. 서론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1997년 세계화 정책을 선언한 김영삼 정부가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과목으로 시행한 이래 오늘날까지 약 30년 가까이 지속 및 확대되어왔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외치며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급증하는 사교육 시장을 잠재우고자 영어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등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속에서도 조기영어교육 시장은 신자유주의와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논리에 따라 확대되었고 그 대상은 영유아에게로 뻗어갔다(이병민 2018).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윤진, 양미선, 김정민 2015)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살 경우 60% 이상이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듣고, 인천광역시의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92% 가량이 자체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유진희 2011) 다수의 어린이들이 평균적으로 3-5세 사이에 영어교육을 처음 접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11, 이석금, 이진희 2015, 김혜미 2017, 송미선, 박현주, 김정준 2017).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영어교육 관련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시작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소위 '맘까페'로 불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주로 육아 정보를 공유했다면 요즘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1]를 통해 영어교육전문가, 사교육 업체, 주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조기영어교육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의 콘텐츠 생산이 활발해진 최근에는 자녀의 성공적인 영어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주부들의 목소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조기영어교육의 한 갈래인 '엄마표 영어'는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이 아닌 부모가 직접 홈스쿨링의 형태로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특징이다(한미혜, 김규미 2022). 부모, 그중에서도 특히 엄마가 가정에서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이와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놀이 위주의 흥미로운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함미아 2009). 한국의 영어교육 시장은 사교육과 공교육, 그리고 '엄마표 영어'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함미아 2009, 이서연, 배지영 2022) 실제로 '엄마표 영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유아영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조기영어교육 관련 연구가 대부분 교수학습방법과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어왔고(마송희 2016), 실태 연구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영어교육 현황을 알아본 연구는 2편에 불과하다. 이는 '엄마표 영어'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정별 각기 다른 교육방법으로 인해 체계화된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는 영어교육의 시작을 결정하는 주체이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담론의 주체이고(강승지, 이연선 2018, 심영숙 2019, Shin et al. 2019) 이들의 성공 사례는 출판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한민국의 엄마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함미아 2009). 특히, 일반인의 콘텐츠 생산이 수월해진 최근 영어교육 비전문가인 주부들이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 '교육 인플루언서'의 이름으로 유튜브와

[1] 유튜브에서 #유아영어를 검색 시 동영상 6.9천개(채널 960개), #초등영어 검색 시 동영상 1.5만개(채널1.3천개), #엄마표영어 검색 시 동영상 1.1만개(채널 1.1천개)가 등장한다(2023. 6. 29일자 기준).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집필해 출간하거나, 특정 교육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즉, '엄마표 영어' 담론은 한국 사회 내 조기영어교육 담론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다(전홍주 2011, 심영숙 2019).

담론은 사회 세계에 대한 인간 체험을 언어를 통해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조직하는 지식의 양식으로 우리가 사회를 인식하는 개념이다(박명진 2012). 담론은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과 태도의 근거가 되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는 글 또는 말로 현대사회에서 담론은 대중매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생성되고 유포된다(전홍주 2011). 이 과정에서 텍스트는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자에 의해 채택, 배제, 배치되는 재현(representation)을 거치면서 의도적인 사회적 실천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익숙한 사회질서를 따르는 관행이 되기도 한다(신동일 2022).

페어클로(Fairclough)는 담론은 단순한 개인적 활동이 아닌 언어 사용을 통한 사회적 실천이자 이데올로기의 실천으로 보고 담론과 권력의 관계를 고려해 비판적으로 담론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Fairclough 1992). 한국 사회에서 영어 능력은 계급적 차이를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문화자본적 지위를 지닌 요소로서(최샛별 2011) 영어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 담론을 분석하고자 할 때 페어클로가 제시한 비판적 시각에서의 담론 분석이 가장 적절한 담론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은 매우 소수이며 이마저도 주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유아영어교육 관련 기사(전홍주 2011) 또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와 같은 특정 정책과 관련된 신문의 사설(정혜욱, 김유리 2020)을 대상으로 언론에서 유아 영어교육과 관련된 담론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이거나 또는 온라인 기사의 댓글을 수집해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공중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심영숙 2019)들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 중에서도 '엄마표 영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누가, 어떤 논리로 '엄마표 영어' 담론을 생산하는지, 담론의 사회적, 문화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장려하는 이들이 구축한 담론의 기저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엄마표 영어'에 대한 담론 주체자들이 대중(주로 엄마)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철학과 구체적인 ''엄마표 영어' 실천 방법을 서술한 '엄마표 영어' 관련 서적들을 담론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 선정했다. 특별히 빅데이터를 이용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해 연구자의 주관성에 치우치는 텍스트 선별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량의 텍스트를 대상으로한 효율적인 양적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정제된 담론 분석 텍스트를 재료로 페어클로가 제시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해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담론 분석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배 엄마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동경과 '엄마'라는 동일 신분이 주는 신뢰와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견고히 성장해 나가는 '엄마표 영어'라는 교육방식에 주목해 그동안 비전문가들의 사적 담화 수준에 머물렀던 '엄마표 영어'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논의로 확대하고자 한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2. 문헌 연구

2.1 '엄마표 영어'의 등장과 발달 과정

'엄마표 영어'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자녀가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가정학습을 말한다(장진태 2012, Yoo and Lee 2006). 함미아(2009)는 학습자의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 지도 방식으로 엄마라는 어휘가 주는 감성적 섬세함이 학습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고 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홈스쿨링(Home-schooling)으로 번역이 될 법도 하지만, 해외에 소개된 엄마표 영어는 'Maternal English education'(Seo 2020), 또는 'Mother-brand English'(Yoo and Lee 2006)이다. 이는 한국 내 가정학습의 개념이 서구에서 와는 달리 방과 후에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직간접적으로 지도하며 교육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다소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진태(2012)는 '홈스쿨링 조기영어교육'이란 유아 및 초등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부모나 이웃이 선생님이 되어, 인터넷 및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을 교재로 삼아 가정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말한다. 엄마표 영어를 'Maternal English education'으로 지칭한 Seo(2020)는 엄마표 영어란 영어학습에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놀이를 결합한 형태의 교육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의 개념을 종합하자면, '엄마표 영어'란 학습자의 부모, 그중에서도 주로 '엄마'의 지도하에 자녀의 흥미와 재미를 고려해 책과 동영상,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진행하는 영어교육 방식으로, 영어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조기 노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습득과 사교육비 경감 등의 목적성을 띠는 홈스쿨링 형태의 조기 영어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엄마표 영어'라는 개념이 생성된 시기는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몇몇 주부들이 자신의 자녀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교육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 구축한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오늘날의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며 웹사이트 확장 및 왕성한 강연과 출간 활동을 이어 나갔고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1세대 '엄마표 영어' 선구자로서 유지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웹사이트인 '쑥쑥닷컴'과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은 모두 1999년에 처음 개설된 개인 홈페이지였다(김동선 2002). 각 사이트는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큰 '엄마표 영어' 관련 웹사이트이자, 각 사이트 대표들의 저서 역시 스테디셀러로 판매되고 있다.[2]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 역시 누가 처음으로 사용했는지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대략 2000년대 초반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언론에서 처음으로 '엄마표 영어'가 등장한 사례는 2003년 경향신문의 문화면에서 「아들 가르치다 영어책 펴낸 황선하 주부」라는 기사(송현숙 2003)이고, 단행본의 제목에 처음으로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쓰인 사례는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연수」(이남수

[2] 쑥쑥닷컴의 서현주 대표의 대표 저서 『Hello 베이비, Hi 맘』은 2022년 개정판 출간 시점을 기준으로 22년간 50만 부가 팔렸고, 잠수네 아이들의 이신애 대표의 대표 저서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은 2003년 출간된 이후로 2013년 통합 로드맵이라는 부제로 개정되기까지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자녀교육 분야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이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2006)이다. 국내 최대 뉴스기사 아카이브 사이트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실린 기사를 검색한 결과 2003년 1건을 시작으로 2005년 1건, 2006년 17건[3], 2007년 6건, 2008년 47건, 이후 많게는 81건(2009년)부터 적게는 28건(2020년) 등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엄마표 영어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 언론에 등장한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의「영어교육과정 개정」과 2009년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는 취지의 일명 몰입 영어(TT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 도입 등을 거치며(이병민 2018) 사회적으로 초등영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조기영어교육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일종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소위 '맘까페'로 불리던 인터넷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본인의 엄마표 영어교육 경험담 과 노하우를 전파해 온 주부들이 유아영어 또는 초등영어 분야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강승지, 이연선 2018). 2023년 7월 기준으로 '#엄마표영어' 검색 결과 유튜브에서는 1,100개 이상의 채널과 11,000개 이상의 동영상이 검색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113.9만 개의 게시글이 검색된다. 대다수의 채널들은 원서 전집, 교구 등의 교육상품 공동구매, 저서 홍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엄마표 영어' 코칭 프로그램(강좌) 등을 홍보하며 수익화를 꾀하고 있다.

2.2 비판적 담론 분석

담론연구는 담론이 세상을 구성하는 실천이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행이라는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다(신동일 2020). 언어, 권력, 이데올로기의 연결에 관심을 가진 언어학자 페어클로(Fairclough 1992)는 언어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제안했다. '비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이데올로기, 정체성, 불평등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연구하기 때문이다(최윤선 2014).

비판적 담론분석은 고정된 연구 방법론을 지니지 않지만, 페어클로는 담론을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는 '담론 분석의 3차원 구도'를 제안했다. 텍스트 분석은 전통적 형태의 언어학적 분석 즉, 어휘 문법, 결합, 텍스트 구조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문장들이 서로 연결된 방식(응집, cohesion), 말순서 취하기(turn-taking) 신문기사의 구조와 같은 분석을 일컫는다. 어휘분석의 초점은 단어가 지닌 체험적 가치 즉,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나 이념적 의미관계(동의, 하의, 반의)를 지닌 단어들은 무엇이며, 어떤 비유가 쓰이는지 등을 파악해 단어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함승경, 최지명, 김영욱 2019).

담론적 실천은 텍스트가 생성되고 사회적으로 배포되고 수용(소비)되는 과정에서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담론의 생산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타입의 담론이 텍스트 생산과 결합되며 누구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따라서 담론적 실천에서 중요한

[3] 2006년 17건의 검색 결과는 모두 한겨레 신문사에서 연재한 '홍현주의 엄마표 영어'라는 문화면 섹션 제목이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개념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서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어떻게 접합, 탈접합하면서 담론을 관습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함승경, 최지명, 김영욱 2019).

예를 들어 국내 이주민의 한국어 능숙도가 낮아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기간이 해당 논문을 인용해 말하기 시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교육부나 법무부의 보도자료로 옮겨지고 이는 언론사마다 정책의도가 내포된 전문가 칼럼, 독자 투고 형식으로 배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주민이 처한 상황과 한국어 능력 시험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묶일 필요가 없지만, 서로 결합되어 유통되기 시작하면 지배적인 담론이 될 수 있다(신동일 2020).

담론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은 담론에 내재한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밝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텍스트의 행위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력과 지식의 특정한 실천을 유도하거나 관행을 유지하는 가치체계이다(신동일 2020). 담론을 정치적 실천으로서 규명하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담론 내 어떠한 권력들이 경쟁하고 권력 경쟁을 통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창조하는지, 또는 관습화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2.3 조기영어교육의 사회적 인식과 담론

조기영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은 크게 동화, 챈트, 뮤지컬 등 특정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며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이와 대한 학부모, 교사, 유아의 인식 조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 특히 담론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적다(마송희 2016).

조기영어교육 중 특히 유아 영어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학습'의 영역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학부모들이 초등영어와의 연계성을 염두하기 때문이며, 주로 '엄마'가 유아 영어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거대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이다(강승지, 이연선 2018). 조기영어교육의 결정권자인 부모들은 자녀의 입시와 미래의 직업 선택을 위해서 유아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김혜미 2017), 주로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고, 자녀가 영어에 흥미를 갖는 것을 조기영어교육의 목표로 인식한다(송미선, 박현주, 김정준 2011).

하지만 이상적인 영어교육 방식 및 적정 시기에 있어서 엄마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를 또래 집단과 비교하는 경쟁의식과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인이며 다수의 부모들이 외부 교육기관에 자녀의 영어교육을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진태 2012, 김혜미 2017).

한편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언론의 담론을 살펴보면, 담론을 이끄는 주체는 주로 사교육업계와 부모이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뉴스 기사가 다수이다. 언론은 영어를 사회적 성공을 위한 문화자본으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전홍주 2011).

2018년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정책과 관련해서 정혜욱과 김유리(2020)가 주요 일간지의 사설 17건을 바탕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담론은 아동중심교육 담론, 사회양극화 담론이며, 이는 세계화 담론, 역(逆)사회양극화 담론, 공교육무용 담론과 대립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정책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심영숙(2019)은 온라인 기사의 댓글 분석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영어수업 금지는 개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사교육을 조장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넓힐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에서는 유아 영어교육에서의 부모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 및 부모의 인식, 그리고 언론에서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담론 분석은 소수에 그치지만 이미 진행된 선행 연구가 있는 반면, 조기영어교육의 방법론 중의 하나인 '엄마표 영어'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담론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엄마표 영어'라는 담론은 어떤 주체에 의해서 생성되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정의와 철학,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긴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텍스트 분석 및 담론적 실천,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엄마표 영어'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식별함으로써 현시대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지형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페어클로(Fairclough 1992)가 제시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활용해 '엄마표 영어'와 관련한 담론을 분석했다. '엄마표 영어' 관련 서적을 대상으로 어떤 집단이 담론을 생성하는지 담론 생산의 주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조기영어교육 관련 담론 분석의 대상은 주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뉴스 또는 사설이었기 때문에 담론 생산의 주체가 분명한 까닭에 담론형성의 주체 집단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엄마표 영어'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주체의 특징을 규명하고 '엄마표 영어' 단행본 출간 추이 및 담론 주체의 특징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 페어클로의 CDA 분석을 적용해 다양한 층위에서 담론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텍스트 분석을 통해 담론의 잠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엄마표 영어''와 관련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를 분석한다.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는 텍스트 분석에 근거해 담론 요소 간의 접합, 탈접합 분석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는 '엄마표 영어'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파악해 우리 사회가 지닌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엄마표 영어' 담론 생산의 주체와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 출간 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엄마표 영어' 관련 담론의 텍스트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나?
연구문제 3. '엄마표 영어' 관련 담론의 담론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 4. '엄마표 영어' 관련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해 오늘날까지 조기영어교육 현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엄마표 영어'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단행본을 분석 대상인 텍스트로 선정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엄마표 영어'에 대한 찬반 여론 또는 공중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엄마표 영어' 담론을 확장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이며 이들이 어떠한 논리와 담론 전략을 활용해 해당 담론의 범주를 확장해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육아 관련 서적은 자녀교육에 관한 주요 정보원으로써(오한나 2017) 많은 부모들이 자녀 육아 및 교육법을 소개한 서적을 구매한다(노태영 2014). 따라서 '엄마표 영어' 단행본은 해당 담론이 타겟 대상자에게 별도의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발행된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의 제목과 부제, 그리고 책 소개 부분의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책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책의 내용과 제목, 표지디자인, 그리고 작가 순으로(장미숙 2003), 책의 제목은 독자의 눈에 가장 먼저 닿는 곳이자 표지 구성 요소 중 그림, 사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독자들에게 구매 동기를 제공한다(고건, 김보연 2015, 이미정 2018). 또한, 책의 제목과 함께 표지에 위치한 부제는 책의 특징과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마케팅 목적의 광고 카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텍스트로 제목, 부제, 책 소개 부분을 선택했다.

분석 대상의 구체적인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 주요 온라인 서점인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각각 '엄마표 영어'로 검색한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단행본 리스트를 추출하였고 중복되는 리스트는 단일화해 총 70권을 선별했다. 또한, '엄마표 영어'라는 검색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정에서 엄마들이 실천할 수 있는 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의 영어 교육법을 다룬 자녀교육서를 폭 넓게 선별하였다. 교보문고에서는 국내도서 > 가정육아 > 자녀교육 > 조기영어교육/홈스쿨링 섹션에 게재된 도서 목록을 검토하였고, 예스24에서는 국내도서 > 가정 살림 > 자녀교육 > 영어교육 섹션에 게재된 도서 목록을 검토하였다. 이 중 2013년부터 2023년간 발행된 서적에 한해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도서라고 판단되는 총 128권을 선별하였다. 종합적으로 '엄마표 영어'로 검색된 도서 70권과 조기영어교육 분야에서 선별한 '엄마표 영어'관련 도서 128권을 합쳐 총 198권의 단행본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읽어보며 전체적으로 중복 여부 및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178권의 도서를 선별했다.

참고로, '엄마표 영어'가 제목에 들어가서 검색 결과에 포함되었지만 최종 목록에서 탈락시킨 책들의 유형은 주로 '엄마표 영어' 활용 표현 모음집과 같은 단순 영어 표현 묶음집 또는 단어장이거나,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서가 아닌 전반적인 자녀교육법을 다룬 교육서, 그리고 '엄마표 영어로 배우는 미술' 등 조기영어교육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책들이다.

3.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엄마표 영어'의 담론 생산 주체와 생산 추이를 분석하고,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페어클로(Fairclough 1992)가 제시한 비판적 담론 분석 모델에 근거해 담론의 텍스트, 담론적 실천,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 등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엄마표 영어' 관련 담론이 어떤 집단의 목소리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엄마표 영어' 관련 도서의 저자들을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가인지 여부에 따라 '전문가', '비전문가'로 분류하였다.[4] 또한, 본인의 직접적인 자녀 영어교육 경험에 근거해 방법론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교육 경험 있음', '자녀교육 경험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는 비정형화된 대량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상위 빈도 단어와 가중치빈도 단어를 선별해 페어클로가 제시한 텍스트 차원에서의 분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담론적 실천 분석을 위해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분석에서 추출된 상위 빈도 단어 50개를 기반으로 담론 구성 요소의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적 등위성 분석인 CONCOR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단어들의 관계 패턴의 유사도에 근거해 키워드들을 묶는 방법으로 비정형 텍스트를 특정 주제별로 묶어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특정 단어들이 어떤 형태로 접합되는지 분석해 어떠한 담론 전략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론의 사회적 실천 분석에서는 경쟁하는 담론들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해 툴민(Toulmin 2006)의 논증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주요 담론을 근거(data), 논거(warrant), 주장(claim)의 요소로 분류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장은 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로 구성된 담론이며, 논거는 근거와 주장을 잇는 논리적 연결로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툴민의 논증법을 통해 담론이 사회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고, 역으로 그렇게 결정된 담론이 사회적으로 누적되면서 어떤 생산, 재생산 효과를 낳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최윤선 2014).

각각의 연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방법

내용	분석 방법	활용 프로그램
담화 주체 및 출간 추이 분석	내용분석 (빈도 계수)	Excel
텍스트 분석	비정형 텍스트의 형태소 분석	Mecab
	상위빈도 단어(TF) 및 가중치 빈도(TF-IDF) 단어 추출	TEXTOM
담론적 실천 분석	구조적 등위성(CONCOR) 분석	Ucinet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툴민의 논증 분석	해당없음

[4] 공인된 기관에서 영어교육에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예: TESOL 자격증 보유, 영어과 교수 등), 영어교육기관(사교육 업체)에서 강사로 근무했거나, 또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공교육에서 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분류하였다. 반면, '비전문가'는 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대개 본인의 영어 실력에 자신이 없는 전업주부이거나 또는 영어와는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엄마 또는 아빠들이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4. 연구 결과

4.1 '엄마표 영어' 담론의 생산 주체와 생산 추이

'엄마표 영어' 담론을 생산하는 집단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대상인 178권의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의 저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TESOL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공교육 또는 사교육 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일명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103권, 58%)가 비전문가 저자(75권, 42%)에 비해 좀 더 많았다. 비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된 주체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전무하고 대게는 스스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전업주부들로, 자신들이 수년간 자녀의 영어교육을 직접 지도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집필한 경우가 96%에 달한다.

반면,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경우, 본인 역시 '엄마'(또는 '아빠')라는 입장에서 자녀의 영어교육에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자녀에게 적용했던 영어교육법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한 경우는 26%에 불과하고 대부분 본인의 전문지식과 그간 영어교육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들을 상담한 축적된 경험에 근거해 책을 집필하는 경우가 74%로 대다수였다. 간혹, 공인된 영어교육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스스로 터득한 영어공부법을 엄마들을 대상으로 설파하는 비전문가의 개인 지식 및 경험에 기반해 집필된 책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3권).

표 2. '엄마표 영어' 담론 생산 주체와 책의 내용 분류

구분	책의 내용	권수	
전문가	자녀교육 경험 기반	27 (26%)	103권
	전문지식 및 교육경험 기반	76 (74%)	
비전문가	자녀교육 경험 기반	72 (96%)	75권
	개인 지식 및 경험 기반	3 (4%)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연도별 출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2013년도 8권에서 시작된 '엄마표 영어' 도서는 2015년을 제외하고는 10여권 정도 발행되는 추세를 유지하다 2020년 30권으로 급작스럽게 그 수가 증가하였고 2022년부터는 다소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도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시행 이후 가정에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엄마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어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저자들이 비전문가 저자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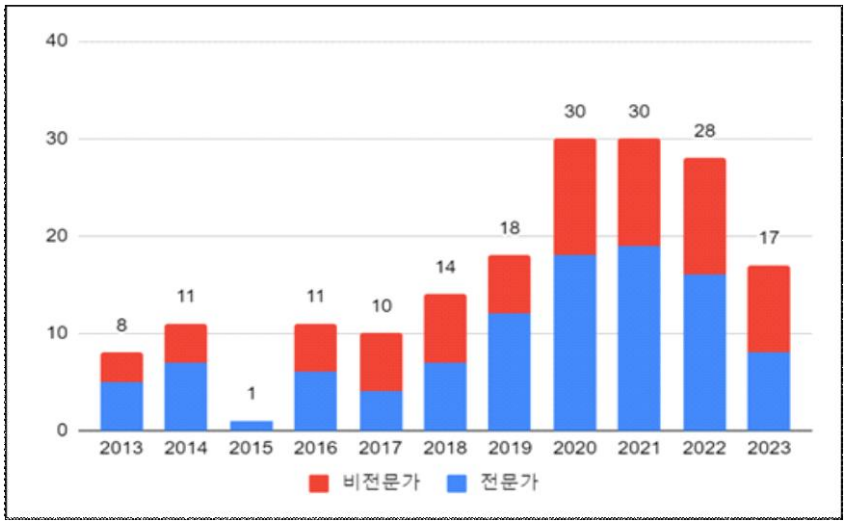

그림 1. '엄마표 영어' 단행본 출간 추이와 담론 주체 분류 (2013-2023)

4.2 '엄마표 영어' 담론의 텍스트 분석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제목과 부제, 그리고 책 소개 내용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분류한 뒤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이유는 책의 제목과 부제는 표지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의 정체성을 간결하게 함축하고 있음과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자극하는 마케팅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서적들이 수용자에게 소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목과 부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거쳐 빈도(TF, Term Frequency)와 가중치 빈도(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기준으로 각각 선별한 상위 30개의 단어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제목과 부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위 빈도의 단어는 영어, 아이, 엄마표, 엄마, 초등, 책, 교육, 공부법, 시작, 공부 등이다. '엄마표 영어'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아이, 엄마표, 엄마라는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다수 제시되었다. 보다 유의미한 단어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 흔히 출현하는 빈도수 기준이 아닌 문서 내에서 단어의 중요도를 고려한 TF-IDF 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열한 결과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영어'가 순위에서 제외되었고, '엄마표, 엄마, 아이, 책, 초등, 공부법, 교육, 시작, 그림책' 등의 단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단어빈도 기준의 상위 단어 리스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 TF-IDF 기준의 상위 빈도 단어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제목, 부제 텍스트 중 상위 30위 단어(TF, TF-IDF기준)

순위	Term	TF	Term	TF-IDF
1	영어	320	엄마표	73.56275158
2	아이	71	엄마	71.41794181
3	엄마표	68	아이	68.97345504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4	엄마	53	책	58.38300382
5	초등	29	초등	55.62354264
6	책	28	공부법	51.15905508
7	교육	24	교육	47.95430165
8	공부법	24	시작	45.87236014
9	시작	22	그림책	43.10346959
10	공부	17	공부	40.86053718
11	기적	17	기적	39.8299186
12	그림책	15	놀이	34.0637901
13	놀이	11	교육법	30.56079906
14	교육법	11	힘	28.7356464
15	힘	10	하루	26.8103264
16	하루	9	비밀	26.8103264
17	비밀	9	로드맵	24.77366553
18	로드맵	8	학습법	24.77366553
19	학습법	8	유치원	23.69073184
20	생각	7	부모	23.69073184
21	독서	7	생각	22.61167708
22	유치원	7	독서	22.61167708
23	부모	7	머리	21.40027092
24	육아	6	집	21.40027092
25	완성	6	육아	20.30634158
26	머리	6	완성	20.30634158
27	집	6	독서법	20.30634158
28	독서법	6	코칭	18.94927686
29	답	5	답	17.8335591
30	사교육	5	사교육	17.8335591

도서들의 제목과 부제 텍스트 분석 결과, 해당 도서들은 영어 '공부(법)', 영어 '교육(법)', '학습법', '독서법'과 같은 교육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서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는 '유치원', '초등'이라고 밝힌다. 또한 도서에서 제시하는 방법(또는 로드맵)을 잘 수행할 경우 '기적', '완성', '답', '힘'과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마케팅적으로 소구하고 있다.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 없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코칭', '놀이',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음을 강조하지만, 결국 자녀의 영어학습을 '공부, 교육, 학습'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칭하는 용어들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엄마표 영어'에 대해 갖는 개념적인 이상과 현실적인 실천 차이에서 불일치(김혜미 2017)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엄마표 영어' 도서들의 책 소개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책 소개 부분에 포함된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 결과, 단순 빈도인 TF 기준 주요 단어와 가중치가 적용된 TF-IDF 기준의 상위 빈도 50개의 리스트는 큰 차이는 없다.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영어', '책', '저자', '노하우' 등은 TF 기준으로는 상위 빈도를 차지하나, TF-IDF 기준에서는 순위가 낮아졌다. 반대로, '놀이', '글쓰기', '노출', '콘텐츠'와 같은 단어는 문서 내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중요한 단어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빈도 기준의 TF 상위 단어보다는 텍스트 내 중요도를 고려한 TF-IDF 기준의 상위 단어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4. '엄마표 영어' 도서의 책 소개 텍스트 중 상위 50위 단어(TF, TF-IDF기준)

순위	Term	TF	Term	TF-IDF	순위	Term	TF	Term	TF-IDF
1	영어	2217	엄마표	219.228	26	공부법	61	고민	88.110
2	아이	943	엄마	174.767	27	과정	61	책	87.880
3	책	556	그림책	161.514	28	단계	59	학원	85.472
4	엄마	413	공부	144.565	29	독서	59	소개	85.416
5	엄마표	330	놀이	141.949	30	노하우	58	경험	83.616
6	교육	278	교육	132.946	31	중요	57	성공	81.968
7	저자	211	시작	126.859	32	유치원	53	중요	81.401
8	공부	200	부모	126.100	33	학교	52	노출	79.974
9	방법	180	방법	119.579	34	학원	51	콘텐츠	79.878
10	시작	167	독서	118.364	35	효과	50	학습법	79.616
11	부모	166	저자	115.321	36	성공	48	환경	78.321
12	초등	103	초등	109.605	37	가능	46	효과	77.907
13	학습	99	글쓰기	109.499	38	환경	45	대화	77.525
14	그림책	84	학습	108.763	39	학습법	44	이야기	77.525
15	놀이	80	공부법	108.236	40	활용	44	제시	77.311
16	소개	79	시간	103.148	41	육아	42	지도	77.254
17	실력	76	육아	102.212	42	이야기	42	맘	76.912
18	시간	71	습득	101.764	43	대화	42	학교	76.861
19	언어	69	생각	96.876	44	실천	41	노하우	76.155
20	생각	69	언어	96.876	45	맘	40	가능	75.677
21	경험	68	실력	91.948	46	필요	40	아들	75.078
22	제시	66	과정	91.749	47	노출	39	영상	73.870
23	고민	66	유치원	90.507	48	마음	39	필요	73.833
24	습득	63	단계	90.314	49	사교육	37	정보	72.962
25	자녀	63	자녀	88.452	50	자연	37	능력	72.654

문서 내 특정 단어의 중요도가 고려된 TF-IDF 기준 상위 주요 단어 50개의 워드크라우드는 <그림 2>와 같다. '엄마표 영어' 도서들은 '부모' 특히 '엄마'('맘')들이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 외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교육', '지도', '공부(법)', '학습(법)')에 대해 '저자'의 '성공'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된 주요 단어는 '놀이, 그림책, 독서, 글쓰기, 영상, 콘텐츠, 노출' 등이다.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을 목표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가정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처럼 보이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초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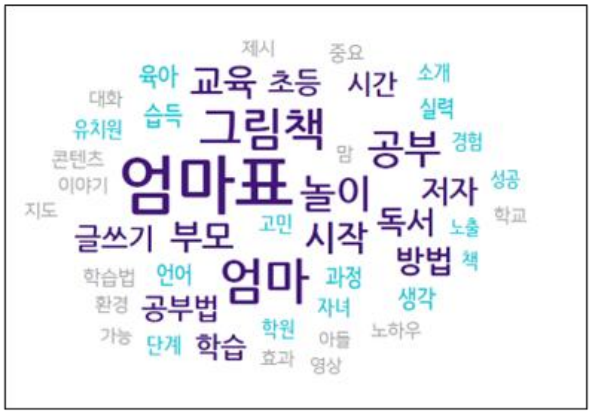

그림 2. '엄마표 영어' 도서의 책 소개 텍스트 중 TF-IDF 기준 상위 50위 단어 워드 크라우드

4.3 '엄마표 영어' 담론의 담론적 실천 분석

'엄마표 영어' 도서의 담론적 실천 분석을 위해 책 소개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수렴적 상관관계(CONCOR)를 분석해서 크게 4가지로 군집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담론들을 도출하였다. 각 담론에 해당하는 주제어들과 각 주제어가 사용된 원문의 맥락을 검토하며 각각의 담론을 명명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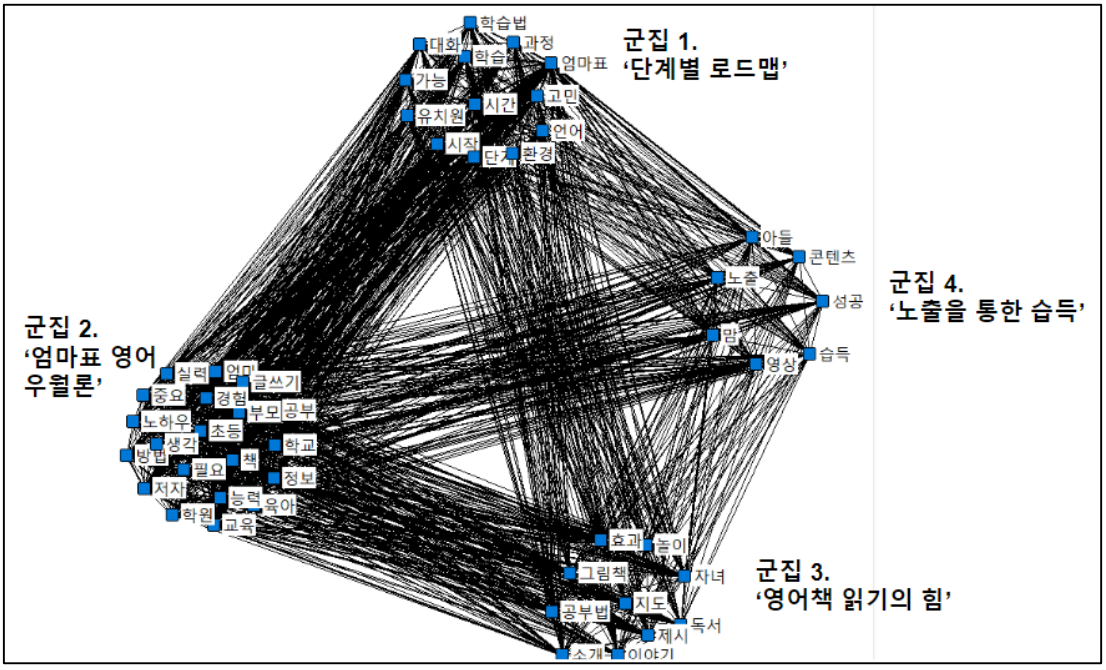

그림 3. '엄마표 영어' CONCOR 분석 결과

첫 번째는 '단계별 로드맵' 담론이다. 해당 담론을 구성하는 주제어는 '엄마표, 학습(법), 과정,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단계, 언어, 유치원, 시작' 등이다. 각 주제어가 사용된 맥락은 다음과 같다.

다른 아이들의 영어 **학습**방법을 자녀에게 무작정 적용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봤던 부모들에게 영어 **학습**원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책에서는 저자가 아이들과 함께 본 영어책과 영어 영상을 비롯해 체계적으로 만들어 꾸준히 실천했던 엄마표 영어 5**단계** **학습**루틴을 소개하고 있다.
영어 하브루타를 **단계**별로 **학습**하며 그 예로 들 수 있는 다양한 **학습법** 영어 하브루타 공부에 활용하기 좋은 책들을 추천해준다.
저자는 영어학습의 적기 영어 **유치원** 2,400시간 노출 법칙 날마다 **학습**원칙 등을 비롯해 한국에서 진행하는 미국 연수식 영어**학습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알파벳, 단어, 기초 문장, 일기, 에세이 쓰기의 총 5**단계**로 영어 글쓰기 로드맵을 제시하며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교재나 자료 방법들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단계**별 영어 그림책부터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리포터 수준의 영어 소설을 읽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총 4**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학습**방법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록해 아들 영어로 고민하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0대 때 3개 국어 20대 때 7개 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 책에는 그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최소 6년 8년 또는 10년 가까이 아이 스스로 영어 원서와 오디오 영상 등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기에 결코 만만치않다.

이처럼 '단계별 로드맵' 담론은 자녀의 언어(영어) 습득을 위해 수년간에 걸친 엄마의 단계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빈도 50위 안에는 없지만, 이러한 담론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로드맵'이다. 실제 '로드맵'이라는 용어는 책 소개 문구에서 해당 도서의 정체성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5]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저자의 경험을 자녀 영어교육의 성공 공식으로 정립하고 이대로만 실천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자녀와 같은 영어 실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담론은 '엄마표 영어 우월론'으로, 특히 '사교육'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담론을 생산한다. 해당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어는 '엄마, 부모, 경험, 방법, 육아, 노하우, 학원, 학교, 실력, 능력' 등으로 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대신 엄마의 노하우로 자녀의 영어 실력을 충분히 향상

[5] '로드맵'는 TF 기준 55위의 단어로 책 소개 텍스트에서 총 34번 등장한다. 본문에서 발췌한 '로드맵'이 포함된 문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유초등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총 18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연령별 영어교육 로드맵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이런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1개월 단위로 60개월까지 촘촘하게 로드맵을 구성했다.', '5세부터 고3까지 영어 기본기 6단계로 완성하는 소문난 영어독립 로드맵' 등이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대표 주제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꾸준히 자녀 교육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적용해 온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최소한의 영어책만으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 준다
세 자녀 모두 **학원** 없이 영어로 말하게 만든 그 방법 돼끼맘식 엄마표 영어가 진짜다.
따로 영어 **학원이**나 영재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다. 영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이 바로 영어책 읽기다.
학원에 보낼 수도 없는데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궁금해죽겠는 엄마들. 내 아이에게 만큼은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의 악몽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엄마들을 위한 필독서
저자의 두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또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을 전혀 보내지 않고 순수하게 엄마표 영어로 이뤄낸 일이다.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지 않고도 어릴 적부터 영어 **학원**이나 과외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영어 **실력**과 인성 사회성까지 기르는 특별한 교육 레시피."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에서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엄마표 영어'의 대척점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상위 빈도 50위 안에는 들지 않지만 '사교육'과 '영어유치원'이라는 주제어가 사용된 아래의 문장을 보면 가정에서의 영어교육이 사교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감에 대한 대안이자 나아가 더욱더 현명한 선택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큰돈 들이지 않고 **사교육** 없이 세 자녀를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SKY에 보낸 살아 있는 전설이다.
- 영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이 바로 영어책 읽기다.
- 그 흔한 **사교육** 한번 없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비결.
- 엄마표 영어는 **사교육**비를 아끼고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 최소 중2 리딩 레벨 확보 **사교육**비 1억 절약.
- 남들보다 뒤늦게 영어를 시작했지만 해외 유학이나 영어 유치원 등 값비싼 **사교육**의 도움 없이 (중략).
- **사교육**에 휘둘리는 엄마들 수준 높은 엄마표 영어 앞에 지레 포기하는 엄마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영어교육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다.
- **영어유치원** 한번 안 가본 OO가 외국인처럼 말하고 영어를 즐기는 아이로 거듭나기까지의 솔직한 경험과 정보가 가득하다.
- 뒤늦게 부랴부랴 맘까페를 뒤지고 **영어유치원** 영어 학원에 보내도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든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에서는 영어조기교육에 있어서 사교육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대중적 인식(안영애 2005)이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교육'의 특징은 '생각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영어를 질려하며' 되려 '정서적 거부감'이 들고 '영어 조급'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야무지고', '따뜻하고', '깔깔'거리며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저자가 '영어유치원'과 '학원' 원장과 같은 사교육계의 전문가 출신임을 내세우는 마케팅 문구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영어유치원에서부터 초등부 영어학원까지 평범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영어유치원 원장 출신 국제학교 이사의 조기 영어교육 노하우', '대형 영어 학원 원장이 알려주는 내 아이 영어 공부 습관 잡는 확실한 지도 비법', '저자는 서초동 캐나다 국제학교, OOO어학원 대치동 영어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의 토플까지 8년 동안 지도한 결과를 토대로' 등과 같이 책 소개 부분에서 저자의 사교육 업계 내 경력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조기영어교육 내 사교육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와 사회경제적으로 상위층인 가정에서 시행하는 사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최샛별, 최유정 2011, 하정희 2007, 심영숙 2019). 또한. 부모들이 직접적인 자녀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영어 실력과 남을 가르치는 능력, 시간 등의 부족으로 대부분은 사교육을 택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송미선, 박현주, 김정준 2011) 자녀를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과 고학력이 뒷받침된 저자들이 '엄마표 영어 우월론'과 같은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 군집을 이루는 담론은 '영어책 읽기의 힘'을 주장하는 담론이다. 해당 담론의 주요 주제어는 '그림책, 독서, 이야기, 놀이, 효과, 제시, 소개' 등이다.

아이에게 **독서**습관을 들이게 하는 실천 가능한 비법을 제시한다
정답이 아닌 생각을 유도하는 영어 **독서**법으로 아이 입에서 영어가 좋다는 말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
효과만점 전문 지도 노하우를 가득 담은 영어**독서**지도 바이블이 나타났다
특히 메타인지 **독서**지도의 핵심인 리딩전략을 필두로 영어 말하기 쓰기와 연계하는 깊은 읽기 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지식을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영어 **독서**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책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영어책 읽기 덕분에 독**서**습관까지 잡을 수 있어서 아이의 평생 자산을 쌓는 계기가 된다.
아이 수준에 맞게 점차 실력을 높이는 영어**그림책** 리더스 챕터북 활용법
그림책을 매일 한 권씩 총 100일간 천천히 즐겁게 읽어나가면 어느 순간 영어 실력이 확 늘어나는 슬로우 미러클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책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영어책 읽기 덕분에 **독서**습관까지 잡을 수 있어서 아이의 평생 자산을 쌓는 계기가 된다.
그림책 고르는법 메타인지 파닉스 지도법 낭독과 리텔링 지도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영어책 읽기를 통한 영어 습득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해당 담론은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자발적인 영어 독서를 하는 것을 영어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인식을 나타내며 것이며,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어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담긴 원서 읽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함미아 2009). 이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적 제약과 실제로 영어를 배워도 활용할 기회가 없다는 현실적 활용가능성의 문제점을(김마리아 2006, 김미나 2007)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남 학부모들이 강북 학부모들에 비해 동화책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더욱 중시한다는 연구 결과(윤세영 2008)를 고려했을 때, '영어책 읽기의 힘'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들은 영어 원서 읽기가 영어 실력 향상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의 기본기인 문해력 상승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 군집은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이다. 해당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어는 '노출, 습득, 콘텐츠, 영상, 성공' 등이다. 해당 주제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다.

그 비결은 바로 **노출**을 통해 **습득**하는 몰입 영어에 있다.
우리 아이 영어 실력 영어 환경 **노출**만으로도 충분하다.
저자는 영어 소리를 **노출**하고 2년이 지나면 아이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총 1500여 개의 영어 **콘텐츠**를 분석 정리해 엄마들이 아이의 수준과 학년에 딱 맞는 **콘텐츠**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계별 엄마표 영어 **노출**법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본서에서 제시하는 영어책과 영어 **영상**물 그리고 아이 위주로 조바심 내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편안한 마음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엄마와 아이 모두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
성공의 길로 먼저 걸어간 선배 엄마의 가이드를 따라 꾸준히 1년만 해 보세요
아이에 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완성한 엄마표 영어 **성공** 비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동영상, 동요와 같은 영어 콘텐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송미선 2011, 김혜미 2017). 이는 제2언어 습득과정에 있어서 '이해 가능한 수준의 목표어 입력'이 있어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 Krashen(2004)의 입력가설(Input Hypothesis)과도 같다. 습득은 마치 유아가 모국어를 배울 때와 같은 비슷한 과정을 통한 산물이라면 학습은 목표어에 대한 의식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조기영어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습득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한미혜, 김규미 2022).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엄마표 영어를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 역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는 다시 '학습(법)', '공부(법)'의 이름으로 재명명되고 있다. 이는 부모 자신들이 교육받았던 방법으로 자녀의 영어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송미선 2011)과 달리, 겉보기에는 게임, 노래, 회화 등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흥미 위주의 영어교육처럼 보이나 그 기저에는 초등영어 선행을 목표로 한 전통적인 학습 방법(읽고 따라하기, 따라 쓰기 등)을 탈피하지 못하는 인식과 실천의 불일치(김혜미 2017)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4.4 '엄마표 영어'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사회문화적 실천으로서 담론에 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자 툴민의 논중 분석법을 적용해 앞서 분석한 담론적 실천에서 도출된 4가지의 담론을 근거(data), 논거(warrant), 주장(claim)으로 분석했다. 각 담론의 논증 분석 도식은 <그림 4~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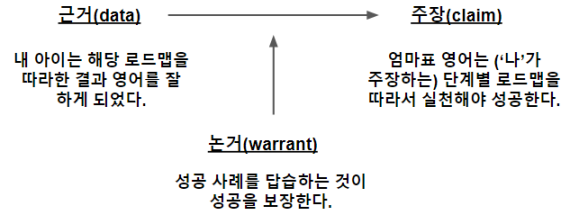

그림 4. '단계별 로드맵' 담론 논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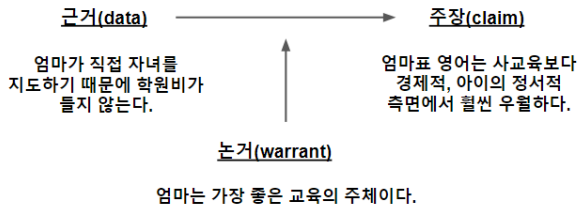

그림 5.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 논증 분석

첫 번째, '단계별 로드맵' 담론은 엄마표 영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저자)'가 주장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성공은 '원어민 수준의 회화, 외고, 특목고 또는 해외 대학 입학,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직업을 얻음'을 의미한다. 이 주장의 논거는 성공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개별 특성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검증되고 획일화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는 또한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무한경쟁의 시장 원리가 침투된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감의 단면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자율 학습 분위기가 장려되지 못하는 보수적인 교육 현실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은 엄마표 영어가 사교육 대비 경제적 측면과 아이의 정서적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학교에서의 영어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은 비싸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정서적 반감(심영숙 2019)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는 다소 모순적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기영어교육 실천 방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사교육에의 의존이며 경제적인 여유가 허락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한다(이서연, 배지영 2022, 김경리, 김영천, 조재성 2022).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저자가 '사교육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역시 사교육을 향한 엄마들의 부정적 태도와 동경이 공존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엄마표 영어'의 동기 유형은 크게 사교육을 희망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지도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고학력 엄마가 사교육의 대안적 모델을 실천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든 간에 '엄마표 영어 우월론'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담론은 어머니가 자녀교육의 책임자라는 근대적 모성 실천의 연장을 넘어(전홍주 2012) 어머니 노릇의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현상(박혜경 2009, Bae and Park 2020)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유경쟁과 탈규제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에 발맞춰 어머니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민상을 '자녀 교육 관리자'라는 역할로 실천하는 것이다(박혜경 2009, Park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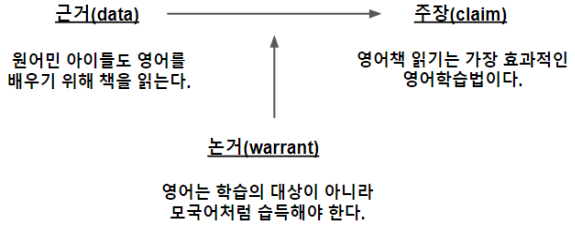

그림 6. '영어책 읽기의 힘' 담론 논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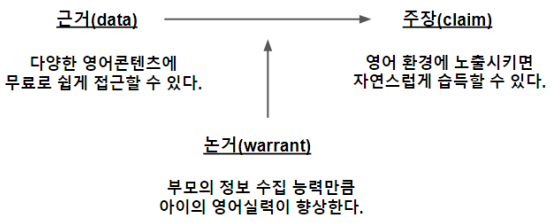

그림 7.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 논증 분석

세 번째, '영어책 읽기의 힘' 담론은 영어책 읽기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는데 효과적인가를 다시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엄마표 영어'의 목표는 자녀의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이다(함미혜 2022). 나아가 원어민 수준의 회화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습득을 원한다(하정희 2007, Lee et al. 2021). 따라서 다수의 엄마표 영어 도서에서 영어 듣기에 충분히 노출을 시킨 뒤 영어 원서 읽기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어민들이 읽는 영어 동화책을 읽으며 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습득할 수 있고 독서를 통해 학습능력과 사고력까지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표 영어의 핵심 단어는 '책'이라고 할 정도로(함미혜 2022) 다양한 영어교수법 가운데서도 '책 읽기'가 주요 담론의 한 갈래를 구성하는 기저에는 과거 학습의 대상으로 영어를 배웠던 부모세대의 비효율적인 영어교육법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자녀들은 글로벌 시대의 필수 역량인 영어를 원어민과 같은 수준으로 습득하기를 바라며 과거 조명받지 못했던 영어 교육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류 교육 방법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마지막 담론인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의 논거와도 같다. 영어 환경에 노출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담론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다양한 영어 콘텐츠가 넘치는 정보의 민주주의 시대에 개인의 정보수집 능력과 노력만큼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즉, 교육의 사유화를 인정하며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우기 이전에 영어를 영어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영어를 끝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다(김혜미 2017).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조기영어교육 방법론 중의 하나로 부상해 온 '엄마표 영어'라는 사회적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엄마표 영어'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를 규명하고,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양상과 담론 내 내재한 이데이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 분석(CDA)을 실시했다. 연구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대상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단행본 178권의 제목, 부제, 책 소개 텍스트이며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내용분석을 통해 담론 생산 주체의 특징 규명과 단행본 출간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였고, 이후 제목과 부제, 그리고 책 소개에 해당하는 텍스트 분석을 실시해 상위 빈도인 주요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 파악을 시행했다. 이후, 담론의 실천 분석을 위해 유사한 패턴으로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군집하는 구조적 등위성 분석(CONCOR)을 실시해 총 4가지 담론 전략을 도출하였고, 각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고자 툴민의 논증 분석을 적용해 담론에 내재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분석 결과, '엄마표 영어' 관련 단행본은 2013년 8권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학습 비중이 크게 증가한 2020년과 2021년 각각 연간 30권이라는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출간되었음을 확인했다. '엄마표 영어'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는 전업주부와 같은 영어교육 비전문가가 전체의 42%(75권)를 차지하며, 58%는(103권)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들이었다.

책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비자의 구매동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책의 제목과 부제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한 결과 '엄마표 영어' 도서들은 '공부법, 교육법, 학습법, 독서법'과 같은 교육 방법서라는 정체를 분명히 나타내며 도서에서 제시하는 실천법을 통해 '기적, 완성, 답, 힘'과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마케팅적으로 소구했다. 책 소개에 해당하는 텍스트 분석 결과 제목 분석과 동일하게 해당 책들은 '유치원'과 '초등'시기에 실천해야 하는 '공부법, 학습법'을 '소개, 제시'하는 책이며 '저자'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놀이, 그림책, 독서, 글쓰기'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이 아닌 '언어, 습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엄마표 영어' 도서의 담론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단계별 로드맵', '엄마표 영어 우월론', '영어책 읽기의 힘'.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이다.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엄마의 단계별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단계별 로드맵' 담론은 수년간에 걸친 엄마의 단계별 지도와 노력을 사교육과 대비시킴으로써, '엄마표 영어'가 사교육보다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가치있다고 주장하는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담론적 실천을 형성했다. 또한, 영어를 학습의 대상이 아닌 노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습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의 구체적인 실천법이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영어 원서 읽기를 강조하는 '영어책 읽기의 힘' 담론은 엄마표 영어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파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엄마표 영어'의 네 가지 담론은 엄마표 영어의 당위성(엄마표 영어 우월론)과 정체성(단계별 로드맵), 그리고 방법론(노출을 통한 습득, 영어책 읽기의 힘)에 대한 담론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각의 담론은 서로 경합하기보다는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각각의 담론을 지지하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론적 실천을 보였다.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 로드맵 담론'은 실패에 대해 무관용한 무한경쟁의 시장 원리가 교육 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하며(Lee et al. 2021) 이러한 자유 경쟁과 탈규제의 교육 현장에서 근대적 모성 실천의 연장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서 소위 '매니저 엄마'(Park 2006)의 역할을 자처하는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 우월론' 담론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어책 읽기의 힘'과 '노출을 통한 습득' 담론의 기저에는 과거 부모 세대가 받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영어학습법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자리잡고 있으나, 궁극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단계별 로드맵 담론'의 성공 사례들을 답습하도록 안내하는 한계를 보인다. 아이의 흥미를 중요시하며 자연스러운 영어 콘텐츠 노출을 시도하지만 이 모든 행위를 '공부법', '학습법', '교육법'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순성을 내재한다.

종합하자면, '엄마표 영어' 담론 분석 결과 '엄마표 영어'는 조기영어교육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실천적 교육이자, '엄마'라는 교육의 주체들이 연대하여 누구든 '엄마표 영어'라는 신종 교육방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름의 방법들을 정립해 가정 내 영어교육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모 세대가 겪은 비합리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해(Shin et al. 2019) 학습보다는 흥미를 중시하며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테크놀로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한다는 점에서도 '엄마표 영어'는 대한민국의 조기영어교육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각 담론의 헤게모니를 좀 더 깊이 분석해볼 때, '엄마표 영어'는 다양한 층위에서 모순성을 드러낸다.

신자유주의의 경쟁체제 속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정보의 홍수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고 교육 주체인 '엄마'들은 교육의 경쟁체제에 대한 동조와 저항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박혜경 2009, Choi 2019, Lee et al. 2021). 비합리적인 과거의 교육방식에 대한 개혁 의지는 있으나 성공 사례를 획일적으로 자녀에게 답습시키며,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 노출을 통해 본격적인 입시 경쟁이 시작되기 전 영어 선행학습을 완료해야 한다는 또 다른 '성공 공식'을 재생산한다. 최근에는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이 직접 개발한 '엄마표 영어 코칭 프로그램'을 상업화하는 추세이다.[6] 다수의 베스트셀러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저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채널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자신이 직접 개발한 '엄마표 영어 12주 코칭 프로그램'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기수제로 유료회원들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한다.

이들은 '보통 엄마'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담론의 잠재적 수용자들과의 연대감을 기반으로 '엄마표 영어'를 사교육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한 담론의 주체들이다. 하지만, 사교육의 대안인 '엄마표 영어'가 또 다른 형식의 사교육 프로그램화되고 있다는 현실 역시 '엄마표 영어'가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엄마표 영어' 담론이 교육의 사유화와 시장화 물결 속에서 근대적 교육방식과 근대적 모성 이데올로기를 탈피하려는 '엄마'의 노력을 반영하며 동시에 새로운 조기영어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 갇힌 또 다른 경쟁을 재생산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담론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의 교육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어머니들의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인식과 언어 이데이올로기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은 자녀의 조기영어교육에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사회 다수가 지지하는 외부적 신념이 개인의 신념을 압도하기 때문에 무한경쟁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선택지를 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고백한다(Lee et al. 2021). 또한 조기영어교육을 수행하는 어머니의 동기가 통합적 동기(integrated motivation)에서 시작된 경우라도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과(Woo and Hodges 2015) 자부심과 같은 심리가

[6] 다수의 베스트셀러 '엄마표 영어' 도서의 저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채널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자신이 직접 개발한 '엄마표 영어 12주 코칭 프로그램'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기수제로 유료회원들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한다.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교육열과 접목되어(Shin et al. 2019) 궁극적으로는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가 앞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엄마표 영어' 담론은 공교육 개선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교육의 사유화, 나아가서는 교육의 모성 책임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중에게 쉽게 도달되는 각종 정보채널을 통해 현시대에 어떠한 영어교육 방법론 및 영어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내 전파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더욱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이 주류였던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에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시켜 연구 방법론을 확장하였고, 연구 주제 측면에서는 그동안 조기영어교육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가정 내 영어교육 소위 '엄마표 영어'로 불리는 신종 교육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시에 새로운 주제에 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누적되지 않아 좀 더 심층적인 담론의 헤게모니 분석을 수행하는데 부족했다는 점과 연구 방법의 간결성 측면에서 향후 더욱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의 예리한 지적과 같이 영어교육 전문가인 저자와 비전문가 저자들의 담론 전개 과정에서의 차이점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본 연구의 지면 한계상 포함되지 못했음을 밝히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승지, 이연선(Kang, S.-j. and Y.-s. Lee). 2018. 우리나라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A Study on Social Perception of Early-Childhood English Education Based on Big Data and Social Network Analysis). ≪미래유아교육학회지≫(*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5(2), 141-168.

고건, 김보연(Ko, G. and B. Kim). 2015. 베스트셀러 표지디자인과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관한 연구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Study on the Purchasing Decision of Consumer and Cover design of Bestseller -Focusing on the online book store-).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52, 84-93.

김경리, 김영천, 조재성(Kim, K., Y. Kim. and Cho. J.). 2022.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위한 어머니의 교육적 실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의 곰 엄마들(Qualitative Case Study of the Mothers' Educational Practices for Children's Academic Success: Korean Bear Mothers) ≪질적탐구≫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8(2), 1-30.

김동선(Kim, D.). 2002. 9월 6일. 영어교육사이트 "쑥쑥"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 성공스토리(English Education Website "Ssuk Ssuk" "Jamsoonae Growing Kids" Success story) 한국일보(Hankookilbo).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0209060068453304에서 검색함.

김마리아(Kim, M.). 2006. 영어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기대와 유아 학습태도 및 흥미(Parent's perception and expectation and children's learning attitude and Interest according to the English learning) 숙명여대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김미나(Kim, M.). 2007.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원장,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arents, principals and teachers on the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Choo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윤진, 양미선, 김정민(Kim, E., H. Yu, Y, Choi, H. Choi, Y. Bae, M. Yang and J. Kim).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2015 National Childcare Survey - Household Survey Report*), 서울: 육아정책연구소(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김혜미(Kim, H.). 2017.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영어교육 방법(Parent's Perception towards Preschool Children's English Education and their Ways of English Practice). ≪영미어문학≫(*Studies in British and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126, 171-193.

노태영(Noh, T.). 2014, 8월 21일. 길고 긴 출판 불황, 육아서적은 '무풍지대'(Long publishing recession, parenting books are in 'wind-free zone'). KBS뉴스(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915567에서 검색함.

마송희(Ma, S.). 2016. 유아영어교육연구동향 : 2006-2015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Trends in Research of 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 A Focus on Domestic Research from 2006 to 2015). ≪한국교육문제연구≫(*Korean Education Inquiry*) 34(4) 125-145.

박명진(Park, M.). 2012.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Thick Language and Thin Language*), 서울: 문학과지성사(Seoul: Moonji Publishing).

박혜경(Park. H. G.). 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Competition over Children's Education and the 'Full-Time Mother' Identity in Korean Middle Class Families) ≪한국여성학≫(*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5(3), 5-33.

송미선, 박현주, 김정준(Song M.-S., H.-J. Park and J.-J. Kim).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조기영어교육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A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Parents Perception in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어린이미디어연구≫(*Korean Association for Children's Media & Education*) 10(3), 115-34.

송현숙(Song, H.) 2003, 1월 28일. 아들 가르치다 영어책 펴낸 황선하 주부(Hwang Seon-ha, a housewife who published an English book while teaching her son). 경향신문(Kyunghayungsinmoon). https://m.khan.co.kr/article/200301281613181에서 검색함.

신동일(Shin, D.). 2022. 『담론의 이해』(*Understanding Discourses*), 서울: 책세상(Seoul: Chaeksesang).

심영숙(Shim, Y.-S.). 2019. 온라인 기사 댓글을 통해 살펴본 유아 영어교육 인식(Exploring Public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through Online News Comments) ≪사회언어학≫(*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7(1), 89-121.

스티븐 E. 툴민 (Toulmin, S.). 2006. 『논변의 사용』(The Use of Argument).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Seoul: Korea University Press).

안영애(Ahn. Y.-a.). 2005.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비교 연구-예비교사, 현직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Choong-Ang University, Seoul, Korea)

오한나(Oh, H.). 2017.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 역할 인식 및 실천에 대한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 and Practice of Parent Role Father and Mother with First Child in Infancy) ≪열린부모교육연구≫(*Journal of Parent Education*) 9(4), 143-170.

유진희(Yu J.). 201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실태 조사 – 인천광역시를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중심으로(A Study on the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of English Education at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 the case of Incheon city).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Inchoe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oen, Korea).

윤세영(Youn. S. Y.). 2008.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A study on awareness of early english educ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서울교육대학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이남수(Lee, N.). 2006.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연수』(Solbit's Mom's English Training). 서울: 길벗스쿨(Seoul: Gilbut School).

이미정(Lee, M. J.). 2018. 베스트셀러 소설 제목의 타이포그래피 조형성 연구(Study of Typography Formality of Best Selling Novel Title)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53, 99-109.

이병민(Lee, B. M.). 2018. 초등학교 저학년 및 입학 전 아동의 방과후 영어교육 폐지를 둘러싼 조기영어교육 진단과 대안(A diagnosis and alternatives of early English education surrounding the abolition of after-school English education programs at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preschools). ≪교육비평≫(*Education Review*) 41, 10-49.

이석금, 이진희(Lee S. g. and J. H. Lee). 2015.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A Study of the Parents' View on English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현대문법연구≫(The Society Of Modern Grammar) 84, 115-140.

이윤진(Lee Y.). 2011. 『유아기 영어교육 실태 분석』(Analysis of English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서울: 육아정책연구소(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이서연, 배지영(Lee, S. Y. and J. Bae). 2011. 초등학생의 조기영어교육 실태 연구(A study on the status of early Englis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 28-1, 127-145.

장미숙(Jang, M.-s.). 2003. 문학도서 북커버디자인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역할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ole of typography used for the design of literary book cover)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장진태(Chang, J. T.). 2012. 홈스쿨링에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인식과 역할(Elementary School Parents' Perceptions and Roles Centering on a Case of Early English Education in Korea) ≪인문학연구≫(*The Journal of Humanities*) 44, 415-433.

전홍주(Jun, H. J.). 2011.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 media discourse analysis) ≪유아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1, 351-376.

정혜욱, 김유리(Chung, H.-w. and Y.-r. Kim). 2020. 신문 사설에 나타난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newspaper editorials: focusing on the policy of 'banning after-school-english-education-program in kindergarten) ≪육아지원연구≫(*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5(3), 29-51.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

최윤선(Choi, Y.). 2014.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서울: 한국문화사(Seoul: Hankook Munhwasa).

하정희(Ha. J.-h.) 2007. 조기영어교육 현장을 통해 본 어머니들의 개별화된 욕망과 계급 불안에 대한 연구(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dividualized Desire and Class Anxiety of Mothers) ≪변형영유아교육연구≫(*The Journal of Transform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1), 85-100.

한미혜, 김규미(Han, M. and G. Kim). 2022. '엄마표 영어' 사례연구 및 이론적 고증(An Analysis on Home Environment based English Education Assisted by Parents in Korea). ≪언어과학≫(*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9(4), 97-124.

함미아(Hahm, M.). 2009. 한국 가정 내 영어 독서 지도 연구(A Study on the English Learning Method in Korean Families). ≪영어영문학≫(*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4(1), 127-145.

함승경, 최지명, 김영욱(Ham, S., J. Choi and Y. Kim). 2019. 언론 보도의 여성 혐오 그리고 남성 혐오 분석: 언어 네트워크와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합(Analysis of Discourse on Misogyny and Misandry in Media Reports: Combining Language Networks wit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홍보학연구≫(*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3(6), 24-51.

Bae, S. and J. Park. 2020. Investing in the future: Korean early English education as neoliberal management of youth. *Multilingua* 39(3), 277-297.

Choi. N., S. Kang., H. Cho and J. Sheo. 2019. Promoting young children's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in EFL context: The role of mothers. *Education Sciences* 9(1), 46-58.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text: Linguistic and intertextual analysis within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3(2), 193-217.

Krashen, S. 2004.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USA.

Park, S. J. 2007. Educational Manager Mothers: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formation. *Korea Journal* 47(3), 186-213.

Lee, M. W., H. Kim and M.-s. Han. 2021. Language ideologies of Korean mother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comparison, money, and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42(7), 637-649.

Seo, Y. 2021. An emerging trend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Maternal English education'(eommapyo yeongeo): Challenges and strategies in raising a bilingual child as a nonnative speaker. *English Today* 37(3), 163-168.

Shin. K., K. E. Jahng and D. Kim. 2019. Stories of South Korean mothers' education fever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39(3), 338-356

Woo, H. and N. N. Hodges. 2015. Education fever: Exploring private education consumption motivations among Korean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44(2), 127-142.

Yoo, S.-Y. and S. Lee. 2006. Mother brand English as an effective approach to teach English for young children as a foreign language in Korea. *Reading Improvement* 43(4), 185-194.

Examples in: Korean
Applicable Languages: Korean
Applicable Level: Tertiary

© 2023 KASELL All rights reserved